



조계종과 화천군에서 개최한 세계평화합동위령제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세계 평화의 종 타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합동위령제에서 스님들이 희생된 고혼을 위로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하고 있다.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내팔에서 공수한 '평화의 불'이온·점화를 위해 참석 내외빈들이 함께 지리했다.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 등이 희생 장병 영단에 헌화하고 있다.

10만 장병 고혼 위로하니 하늘도 울었다

조계종·화천군, 13일 세계평화합동위령제 개최

정전 60주년을 앞두고 강원도 화천에 평화를 염원하는 대규모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조계종과 화천군은 7월 13일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평화의 댐 일원에서 봉행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세계 28개국의 10만 여명의 젊은이들의 넋을 기렸다.

특히 이번 위령제는 피아구분 없이 이뤄진 세계 최초의 행사라 세간의 의목을 받았다.

강원도 화천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특히 정전 직전 화천 파로호와 백암산 일대에서 벌어진 공방전에서 양측은 인질인양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사망자만 10만 여명에 달했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스님의 천도 영산대재가 알렸다. 두 시간의 의식이 봉행되는 동안 하늘은 하염없이 비를 뿌렸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무고한 10만여 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듯이.

천도 의식이 끝난 후에는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스님이 내팔에서 가져 온 '평화의 불'을 화천으로 이운해 점화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선묵 혜자 스님은 '평화의 불'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 김경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마린코비치 주한외교사절 방문단

장 등에게 전달했고, 불은 이내 접화대에 오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남북갈등 해소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이 불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의 댐에 영원히 봉안된다.

자승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은 세계인의 상처로 남은 6.25 한국전쟁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이 땅에서 산화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피면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고, 고귀하지 않은 이가 없다. 모두들 자신이 속한 나라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이 땅에서 노력하다 전몰하였을 뿐"이라며 "각자의 입장을 넘어서 진정한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어떤 생명 하나하나라도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생명을 가진 미물 하나라도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온 몸을 희생한 까닭"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 땅에서 겪은 아픔을 우리가 함께 보듬을 것이니 이 땅에 얽힌 아픈 인연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며 "여기에 묻힌 젊은이와 고귀한 생명이 영원한 평화가 되어 이 산하로 돌아오기를 모두의 정성으로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자유와



10만 희생 장병을 위한 살풀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화천 전투서 숨진 세계 28개국 영령 합동 추모

자승 스님 등 국내외 귀빈 5천여 명 참여... 평화 발원

세계평화 위령탑 건립 선포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는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치열했던 최대 격전지인 파로호와 백암산 굽이마다 국가와 민족과 이념을 떠나 이름 없는 수많은 용사들이 63년 동안 말없이 잠들어 있다. 충성이 맺은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넋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애처로운 영혼들의 한을 풀어 드리고 아픈 역사를 결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감찰 화천군수는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를 도왔던 세계 각국에 보은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념?종교?인종 갈등을 넘어 세계 평화를 시작하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국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주한외교사절단을 대표해 단상에 나선 슬로보단 마린코비치 세르비아 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위로해준 점에 대해 대신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슬로보단 대사는 정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위령제에서는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연숙 세계평화합동위령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평화선언을 통해

참가자들은 "분쟁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를 괴롭혔다"며 "우리 인류는 평화를 누려야 하기에 더 이상 지구상에 갈등과 반목 그리고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전 인류를 향해 평화선언을 할 때"라며 "이번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시작으로 나비효과를 타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가슴에 닿아서 세계평화가 깃들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위령제는 세계평화위령탑 건립 선포식과 세계 평화의 종 타종,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이날 위령제에는 재부부장 원범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사회부장 범광 스님, 호법부장 정안 스님, 포교부장 송목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을 비롯해 제3교구본사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법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 부산 흥법사 주지 심산스님,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국가보훈처와 사회각계 주요인사, 참전용사 등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화천군은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참가국들로 부터 평화위령탑 건립 기금을 전달받아 내년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민통선 북쪽 평화의 숲과 전쟁 무기를 조형물로 만드는 국제평화아트파크도 조성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자료 제공= 화천군청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의 수의왕생을 발원하옵니다

감사의 말씀

존경하는 큰스님과 사부대중께서 저의 큰 스승이신 석가산 장로님의 자모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 다비 기간 중 왕립하시어 위로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난 6월 20일 11시 청주시 목련공원에서 다비(화장)시 마야성 노보살님의 진신사리 500여과가 오색찬란하게 출현하시었습니다.

사리는 옥색의 미륵반가사유상, 관음상 백색 뼈속에 솟아난 비취빛 홍색 우담발화, 연화 등 갖가지 형상은 습골하던 저희들은 놀라움과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발원하는 저희들에게 힘써 수행정진 하라시는 가르치심 이기에 슬픈 마음 갈무리하고 큰스님과 사부대중께 모든 공덕 두 손 모아 회향합니다.

마성, 해우, 마승, 마조, 마석, 해관, 마문, 종아, 마덕, 마회, 모현, 현국, 현석, 현령, 현용, 현중, 현초, 청공, 청봉, 보현성, 광림성, 불도화, 대각성, 관음자, 니연화, 환희해, 현령성, 다향성 합장



49재 모시는 말씀

저의 큰 스승이신 석가산 장로님의 자모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께서 사바를 여의시어 마음 허허로움 여유도 없이 어연 49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제방의 큰스님과 사부대중께서 49재에 광림하시어 마야성 김종숙 노보살님의 수의왕생과, 영산회상에서 저희들이 다시 볼수 있도록 축원하시고 발원하여 주시길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국내 증명대회상 : 세계불교회 부회장 석의현 대장로, 용성문도회 대표 석홍교 대장로, 각 종단 대표, 석정각 대장로.

국외 증명대회상 : 세계불교승가회 비서장 석해운 장로, 상해시 불교회회장 석각성 장로, 광동성 불교회회장 석명생 장로.

장 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원용호국사
일 시 : 응화세존 3040년 양력 8월 3일 토요일 오전10시
찾아오신 길, 네비게이션(전화번호 043-532-1875 또는 원용호국사

※ 큰스님은 종사부, 가사, 장삼 ※ 대덕스님은 가사, 장삼을 수하시야 재식에 임석하실 수 있음을 양찰해 주시기 양망 여불비에합니다.